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학위논문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와 사회불안의 관계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한 상 연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와 사회불안의 관계

지도교수 권 석 만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한 상 연

한상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성향(이하에서는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라 칭함)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란 긍정적인 평가를 부정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연구 I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DPSOS)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137명의 대학생 자료에 근거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와 동일한 2요인(타인 귀인, 자기 귀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적절한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DPSOS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불안과 관련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질문지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DPSOS는 사회불안,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II에서는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개념인지 확인하였고, 이러한 성향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총 259명의 대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DPSOS가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임을 확인하였으며,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유의

미한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을 더 잘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사회불안

**학번** : 2013-20107

# 목 차

국문초록 .....	i
서 론 .....	1
사회불안장애 하위유형 및 유형별 특징 .....	2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행동모델 .....	5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7
사회불안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	8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	10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3
연구 I.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의 번안 및 타당화 .....	16
방법 .....	16
결과 .....	21
논의 .....	28
연구 II.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가 사회불안 및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 .....	30
방법 .....	33
결과 .....	35
논의 .....	42
종합논의 .....	43
참고문헌 .....	48
부 록 .....	57
영문초록 .....	73

## 표 목 차

표 1.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	21
표 2.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24
표 3. 연구 I 에 사용된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	25
표 4. DPSOS와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 .....	26
표 5. 연구 II 에 사용된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	35
표 6.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와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 .....	36
표 7. 사회불안에 대한 FNE, FPE, DPSOS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37
표 8. 구조 모형 검증 결과 .....	40
표 9. 연구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결과 .....	41

## 그림 목 차

그림 1.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인지행동모델 .....	5
그림 2. 구조 방정식 모형 .....	39

## 서 론

도가(道家)의 시조이자 사상가인 노자(老子)는 유약겸하(柔弱謙下)의 삶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유약겸하란 말 그대로 약하고 부드러우며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써 우리가 평생 동안 지향해야 하는 자세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을 심하게 낮추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가치절하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과연 겸손의 미덕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긍정적 평가나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치절하 하여 부정적 신념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들이 보이는 지나친 겸손이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사회불안을 유지하고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불안이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그리고 사회불안장애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수행 불안만을 보고하며, 수행 불안을 지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특성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다른 사회불안장애 환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수행 불안만을 지닌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증가된 신체적 반응(예: 심박률)을 나타냈다. 또한 수행 불안은 늦게 발병하는 편이고, 성격 특성(예: 수줍음, 행동억제)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oone et al., 1999; Dodge, & Becker, 1990; Heimberg, Hope, Levin, Saoud, & Strauman, 1993). 뿐만 아니라 수행 불안은 다른



유형의 사회불안과 달리 베타-아드레날린 차단제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ögels, Alden, & Beidel,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수행불안이 다른 유형의 사회불안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 유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Heimberg et al.,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DSM-5에서 사회불안장애의 세부진단으로 ‘수행 단독형(performance only)’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사회불안장애의 수행 단독형이란 청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수행 상황에서만 불안이나 두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불안장애는 매우 흔한 심리적 문제다. DSM-IV에 기반한 사회공포증의 평생유병률을 살펴볼 때,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10% 전후의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역학조사에 따르면, 사회공포증의 평생유병률은 0.5%, 12개월 유병률은 0.3%로 2001년 역학조사 때의 유병률에 비해 각각 0.2%, 0.1%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서양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유병률을 나타내었다(보건복지부, 2012). 하지만 이러한 낮은 유병률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동양권 국가에서 조사된 유병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동양권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철수된 행동에 대해 서양보다 더 수용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유병률이 서양 국가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Heinrichs et al., 2006).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40%가 사회적 수줍음을 보고했듯이 사회불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징 중의 하나다(김은정, 1999).

## 사회불안장애의 하위유형 및 유형별 특징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 범주의 특성을 바탕으로 Schlenker와 Leary(1982)는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구분하는 유형 체계를 제안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 명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상황, 낯선 사람을 만나는 상황, 이성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며,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말할지 모르거나 무시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박선영, 2003). 반면, 수행 불안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거나 관찰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상황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유형을 의미하며, 가장 대표적인 수행 불안으로는 발표 불안이 있다(Boone et al., 1999).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불안하게 보이거나 이상해 보이거나 떠는 것처럼 보이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등 신체적 증상을 보일까봐 두려워한다(박선영, 2003).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어왔다(Mellings & Alden, 2000; Rapee & Lim, 1992; Stopa & Clark, 2001).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와 대조적으로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Alden & Wallace, 1995; Beidel, Scharfstein, Wong, & Alfano, 2010; Hope, Rapee, Heimberg, & Dombek, 1990). 이렇게 다소 혼재된 연구 결과들은 사회불안장애의 하위유형별 평가 편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Heimberg 등(1990)은 역할극 수행 과제를 이용하여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에서 사회불안장애의 하위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에 따라 자기 평가 및 타인 평가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집단은 자신의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가 비슷했던 반면, 수행 불안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관찰자가 평정한 것보

다 더 부정적으로 편향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Alden 등(1995)의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수행에 대해 평정한 자기 평가는 타인 평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집단은 통제 집단의 참여자들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평정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예: Beidel et al., 2010; Hope et al., 1990)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혜린(2012)이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신혜린(2012)의 연구에서, 수행 불안 집단의 참가자들은, 수행 수준이 통제 집단의 참가자들만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자신이 수행을 잘하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편향하여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였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집단은 자신의 낮은 수행 수준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한 지각을 가지고 평가하는 반면, 수행 불안 집단은 자신의 수행에 대하여 왜곡된 지각을 가지고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수행 불안 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집단에 비해 개인적 완벽주의 성향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박선영, 2003; 최정훈, 이정윤, 1994).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수행을 더욱 낮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내는 완벽주의 성향은 수행 불안 집단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집단보다 자신의 수행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왜곡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 특성임을 알 수 있다(Hook & Valentiner, 2002).

##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행동모델

현재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인지행동모델이다 (Rapee & Heimberg, 1997). 인지행동모델은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이며, 인지행동모델에 대한 도식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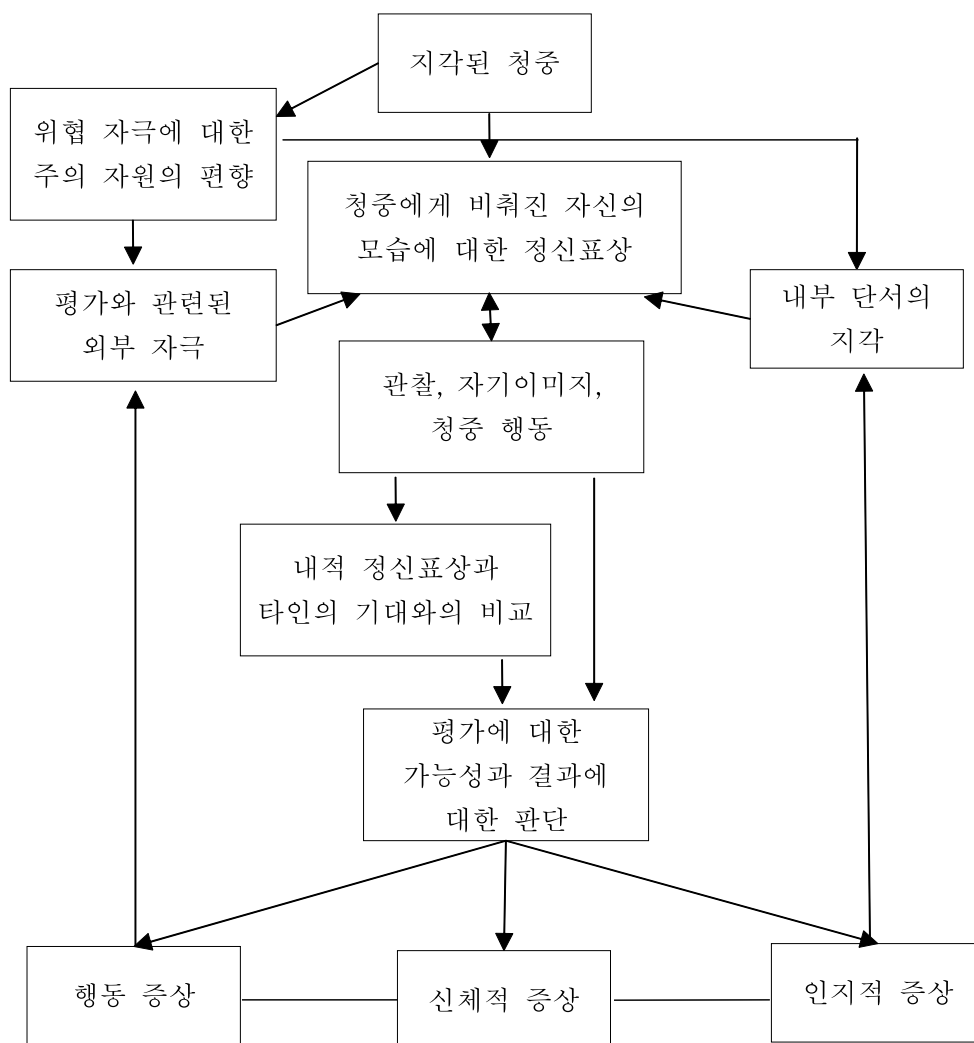


그림 1.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인지행동모델(Rapee & Heimberg, 1997)

이 모델에서 가리키는 지각된 청중(perceived audience)이란 발표 상황이나 평가 상황에 존재하는 청중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존재하는 상대방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바라보거나 평가하는 청중이 일단 지각되고 나면, 사회불안을 지닌 개인들은 청중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적 심리표상을 형성한다.

내적 심리표상은 청중들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이미지나 모호한 감각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내적 심리표상은 사회적 상황 속의 외부 자극 및 내적 자극에 의해 수정된다. 또한 자기에 대한 정신표상은 불안 증상(예: 얼굴이 빨개짐, 땀을 흘림)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적 위협자극에 주의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청중들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내적 정신표상과 일치하는 외부 위협자극에 주의 자원을 과도하게 할당하여 부정적인 정신표상을 더욱 강화시킨다.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청중들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과 내적 표상을 청중들이 기대하는 수행에 대한 기준과 비교한다.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고 믿는 반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영향을 과국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상과 이에 대한 과국적 해석은 다양한 행동적, 인지적, 신체적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듯 인지행동모델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 특징임을 강조하고 있다(Clark & Wells, 1995; Marks, 1969; Nichols, 1974; Rapee & Heimberg, 1997).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절하게 평가되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Weeks et al., 2005). 다시 말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인지적 특징으로 인식됨에 따라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박서정, 이정애, 오강섭, 2010). 예를 들어, Miller(1995)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수줍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Kocovski와 Endler(2000)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자기 존중감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특질불안이나 사회적 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Stein, Jang, & Livesley, 2002). 뿐만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사회불안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Rapee et al., 1997).

이와 같이 사회불안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및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단지 부정적인 평가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 상황 전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Weeks, Heimberg와 Rodebaugh(2008)는 이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 하였으며, 이는 사회불안 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으로 부각되었다.

## 사회불안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positive evaluation)이란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불편해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을 걱정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의미한다(Weeks, Heimberg, Rodebaugh, & Norton, 2008).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부분적으로 사회불안에 대한 심리-진화 모델(psycho-evolutionary model)에 기인한 것이다(Gilbert, 2001). 심리-진화 모델에 의하면, 사회불안은 사회적 순위(social rank)가 다양한 집단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는 진화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생존에 적응적인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계에서 상향 이동함으로써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경쟁과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진화 모델에서는 이를 ‘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doing well)’이라 하였다. 즉,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좋은 수행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아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미래에 더 강력한 상대와 경쟁하여 자신의 사회적 이득을 유지하고 방어해야만 한다는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이다(Weeks, Rodebaugh, Heimberg, Norton, & Jakatdar, 2009). 하지만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진화 모델에만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는 경쟁불안이 아닌 또 다른 인지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영주, 박기환, 201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자 한 설명모델을 정보처리 과정모델이라 한다(전영주 등, 2011). 정보처리 과정모델에서는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즉 인지적 처리과정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먼저,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 자체를 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등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편향을 보인다. Voncken, Bogels와 Vries(2003)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건(예: 타인의 칭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lden, Taylor, Mellings와 Laposa(2008)는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한 실험 보조자와 대화를 한 후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불안 집단의 참여자들은 비사회불안 집단의 참여자에 비해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미래의 부정적인 평가로 해석하여 예기불안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Wallace와 Alden(1995)은 사회불안을 지닌 남성과 사회불안이 없는 남성을 대상으로 2번의 상호작용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첫 번째 상호작용의 경우 이후의 상호작용 과제에 대한 연습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했으며, 첫 번째 상호작용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및 피드백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상호작용 과제를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화 상대방의 태도와 연구자의 피드백을 통해 제시되었다. 실험 결과, 사회불안을 지닌 남성들은 연습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 두 번째 상호작용에 대한 타인의 기대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 그 자체가 긍정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실패를 예상하게 하는 예기불안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Wallace & Alden, 1997).

정보처리 과정모델에서 제시하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편향은 긍정적인 사건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덜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설명하지만, 이들이 왜 긍정적인 평가를 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예기불안은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어떠한 차별점을 지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귀인양식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접목하여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격하시키는 인지적 경향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성향이 기존의 정보처리 과정모델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이하에서 긍정 결과 가치절하라 칭함)란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관대하기 때문에 혹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Weeks,

2010). 다시 말해,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자기 귀인은 최소화하고 타인 귀인은 최대화하여 긍정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격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부정확한 것이라고 가치절하하거나 격하시킴으로써 이를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종의 인지적 사고 오류(cognitive thinking error)라고 할 수 있다(Weeks, 2010).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표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나 사건을 받아들일 때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표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한다(Weeks, 2010). 다시 말해, 부정적인 자기 표상과 일치하는 부정적인 단서나 정보는 더욱 과묵화시켜서 받아들이는 반면, 긍정적인 단서나 사회적 사건은 그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가치절하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배격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긍정 결과 가치절하는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보고하는 긍정성의 감소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호의적 평가에 대한 가치절하 성향은 사회불안장애를 유발하는 병인적 요소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Weeks, 2010). 실제로 많은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성향은 사회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Heimberg & Becker, 2002).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사회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나 간단한 실험 연구가 주를 이뤘다. 먼저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한 상관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Weeks(2010)의 연구에서는 긍정 결과 가치절하와 사회불안장애

의 특성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는 긍정적 정서 및 자동적 사고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 정서 및 자동적 사고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Vassilopoulos(2010)는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액면가(face value)’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호의적인 평가의 타당성을 불신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Weeks, 2008)에서는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간의 관련성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해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 높은 불편감을 보고했으며, 피드백의 정확성을 낮게 평가하여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나타내었다. Alden과 Wallace(1995)는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에게 연구 보조자와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분을 쌓는 대화를 나누는 과제(getting acquainted interaction)를 제시하였다. 연구 보조자는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지시되었으며, 참여자는 상대방이 보인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유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사회적 기술을 가치절하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즉,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 자기 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격하시키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 편향된 평가를 하여 긍정적 평가를 격하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또 다른 연구(Vassilopoulos & Banerjee, 2008)에서는 사회불안을 지닌 아동에게 시나리오 상황을

제시하여 아동에게서도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에서 사회불안을 지닌 아동은 긍정적으로 묘사된 사회적 사건에 대해 가치절하 하는 해석 성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아동 사회불안 환자들 역시 긍정 결과 가치절하라는 인지적 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였을 때,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도 불편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불편감은 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인지과정에서의 왜곡에 의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 중 하나는 긍정적인 평가를 자기 자신의 특성으로 귀인시키기보다 외부나 상대방의 특성으로 귀인시킴으로써 긍정적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의심하고 이를 가치절하 하는 성향, 즉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다. 그리고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실제로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장애를 유발하는 병인적 요소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Weeks, 2010). 또한 이러한 성향은 사회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Heimberg et al.,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특정적으로 측정하는 심리 측정도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연구 I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이하에서는 DPSOS라 칭함)를 번안·타당화하여 측정도구의 부족을 보완하였다.

DPSOS는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가치절하 하는 인지적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Weeks가 2010년에 개발한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를 가리킨다. DPSOS는 10점 척도로 평정할 수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다. DPSOS는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타인 지향적 귀인(other-oriented attribution)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타인의 특성이나 경험에 귀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와 굉장히 잘 지낸다면, 그건 대개 상대방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와 같은 문항이 타인 지향적 귀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타인 지향적 귀인과 대비되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자기 지향적 귀인(self-oriented attribution)이 있다. 자기 지향적 귀인이란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반영하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진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이 자기 지향적 귀인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II에서는 연구 I에서 번안·타당화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먼저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즉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내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편향과 완벽주의 성향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행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수행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과 실제 수행 간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어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수행을

더욱 낮게 평가하는 부정적 평가 편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한 평가, 특히 이러한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이를 부정확한 것이라고 지각하며 가치절하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부정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가치절하 하는 성향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연구 II에서는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 연구 I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의 변안 및 타당화

연구 I에서는 Weeks(2010)가 개발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DPSOS)를 변안하고 요인분석과 신뢰도 확인을 통해 그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 관련 심리특성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방 법

### 참여자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 참여 시스템(R-point system)을 이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137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선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3세(표준편차 =3.54, 범위 18~31세)이었으며 이 중 남자가 60명, 여자가 77명이었다.

### 측정도구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Weeks(2010)가 개발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총

13문항으로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9(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할 수 있는 10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2개의 역문항(4번, 10번)이 포함되어 있다. Weeks(2010)는 DPSOS가 타인 귀인과 자기 귀인 등 2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하였다. Weeks(2010)의 연구에서 DPSOS의 타인 귀인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5로 우수한 편이었으며, 자기 귀인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67로 적절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한국판 DPSOS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으로 우수하였으며, 타인 귀인 및 자기 귀인 요인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각각 .87과 .81로 양호하였다.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Liebowitz(1987)가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박선영(2003)이 번안한 한국판 LSAS를 사용하였다. LSAS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과 수행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측정한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할 수 있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사회불안이 .87,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88, 수행 불안이 .83이었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과 Clarke(1989)가 개발한 척도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할 수 있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안한 한국판 SIAS를 사용하였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SIAS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8~.94이었으며,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이었다.



**사회적 공포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Mattick과 Clarke(1989)가 개발한 척도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할 수 있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안한 한국판 SPS를 사용하였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SP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9~.95이었으며,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1이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FNES).**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3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Leary(1983b)가 12문항만 뽑아서 단축형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한국판 FNES를 사용하였다. 이정윤 등(1997)의 연구에서 FNES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FPES).** Weeks, Heimberg와 Rodebaugh(2007)가 개발한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10(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할 수 있는 10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잠재적인 응답 오류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개의 역채점 문항(5번, 10번)이 포함되어 있지만 FPES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박서정, 이정애, 오강섭(2010)이 번안한 한국판 FPES를 사용하였다. 박서정 등(2010)의 연구에서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FPE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이었으며, 사회불안장애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내적 합치도는 .88로 보고되었다.

펜실베이니아 걱정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 Meyer, Miller, Metzger와 Borkovec(1990)이 걱정 특질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김정원과 민병배(1998)가 번안한 한국판 PSWQ를 사용하였다. PSWQ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Meyer 등(1990)의 연구에 따르면 PSWQ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로 보고되었다.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비임상 표본의 우울증상을 감별하기 위해 Radloff(1977)가 제작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점구, 최상진, 양병찬(2001)이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비임상표본을 대상으로 한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절차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질문지(DPSOS)의 번안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척도의 문항 내용을 번안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DPSO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번안한 척도와 여러 심리특성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1단계: 문항번안

척도 문항을 번안하기 위해 먼저 DPSOS의 개발자인 Justin W.

Weeks로부터 2014년 3월 25일에 척도 변안에 대한 승인을 허가받았다. 이후 문항의 내용을 연구자가 1차 변안하였으며,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임상심리학 전공자의 검토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쳐 문항 내용이 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지를 확인하여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 **2단계: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확인**

변안된 DPSOS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불안정 요인이나 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척도 및 전체 척도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구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 **3단계: 상관분석을 통한 타당도 확인**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DPSOS 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DPSOS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DPSOS는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 **통계적 분석**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SPSS(version 20.0)를 사용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DPSOS)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DPSOS 1	4.03	2.64
DPSOS 2	3.58	2.53
DPSOS 3	5.30	2.61
DPSOS 4	7.21	2.20
DPSOS 5	5.18	2.57
DPSOS 6	4.38	2.95
DPSOS 7	4.69	2.82
DPSOS 8	4.05	2.66
DPSOS 9	4.35	2.73
DPSOS 10	6.78	2.28
DPSOS 11	4.03	2.52
DPSOS 12	4.83	2.82
DPSOS 13	3.90	2.38

### 탐색적 요인분석

DPSO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DPSOS를 구성하는 11문항 (역문항 2개 제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와 Bartlett 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KMO 적합성 지수는 .877로 문항 간 상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Kaiser, 1974), Bartlett 검증 결과  $\chi^2(55, N=137)=807.741$ ,  $p<.001$ 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절한 요인 수를 선정하기 위해 주축 요인 추출 방식(principal axis factoring)과 pro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의 수가 2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2개의 고유치는 다음과 같았다: 5.73, 1.13. Scree 도표를 이용하여 고유치 감소 정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2~4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요인의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슷한 내용을 지니는 문항들끼리 같은 요인으로 묶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해석 또한 용이하였다.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할 경우 두 가지 요인에 중복 부하되는 문항이 발생하였다.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한 경우 하나의 요인에 한 문항만이 묶이는 현상이 나타나 4개의 요인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질문지 문항은 2개의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적합성 지수는 .91로 문항 간 상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검증 결과  $\chi^2(55, N=137)=734.862, p<.001$ 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요인 1은 ‘사람들은 단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 농담이 재미없더라도 웃어줄 것이다.(문항 3)’, ‘내가 누군가와 굉장히 잘 지낸다면, 그건 대개 상대방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문항 9)’,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다른 참석자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와 더 관련이 있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 맺는 내 능력과는 별 상관 없을 것이다.(문항 13)’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타인이나 상대방의 특성으로 귀인시키는 것과 관련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타인 귀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나의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를 별 것 아니라고 일축해버릴 때가 많다.(문항 6)’, ‘나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

이다.(문항 8)등과 같이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자신의 특성으로 귀인시키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항들이 요인 2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요인 2는 ‘자기 귀인’ 관련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1	2
<b>요인 1. 타인 귀인</b>			
3	사람들은 단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 농담이 재미없더라도 웃어줄 것이다.	.763	.172
9	내가 누군가와 굉장히 잘 지낸다면, 그건 대개 상대방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760	.356
13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다른 참석자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와 더 관련이 있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 맺는 내 능력과는 별 상관 없을 것이다.	.708	.294
7	다른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낸 듯할 때, 상대방이 그저 예의를 차린 건지 의심이 된다.	.671	.476
12	나는 “말 걸기 쉬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편이다.	.644	.135
11	사람들은 단지 나에게 맞장구 쳐주기 위해 내 얘기가 재미있다고 말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591	.520
5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나보다는 상대방 때문일 거라고 여긴다.	.535	.444
<b>요인 2. 자기 귀인</b>			
6	나는 나의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를 별 것 아니라고 일축해버릴 때가 많다.	.097	.764
2	나는 “운이 좋은 날”에만 사회적으로 잘 풀린다고 느낀다.	.329	.742
1	누군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 쉽다고 느끼곤 한다.	.328	.713
8	나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	.341	.668

## DPSOS의 신뢰도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계산하였다.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관련된 전체 13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또한 요인 1(타인 귀인)과 요인 2(자기 귀인)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7과 .81로 나타나 DPSOS의 전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하위 요인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내적합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분석을 통해 두 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두 하위 요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 $r=.68, p<.01$ )이 나타났다. 연구 I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기술 통계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연구 I의 분석에 사용된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137)

	평균	표준편차
DPSOS	56.85	23.17
LSAS	103.32	22.43
SIAS	55.32	14.93
SPS	46.01	13.94
FNE	40.59	9.08
FPE	41.39	16.35
PSWQ	51.67	14.71
CES-D	33.78	12.43

주. DPSOS=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LSAS=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SIAS=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PS=Social Phobia Scale, FNE=Fear of Negative Evaluation, FPE=Fear of Positive Evaluation, PSWQ=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CES-D=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 DPSOS와 다른 척도의 관계

DPSO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DPSOS와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

		DPSOS	
		타인 귀인	자기 귀인
DPSOS	타인 귀인	-	.69**
	자기 귀인	.69**	-
	LSAS	.52**	.46**
	SIAS	.66**	.61**
	SPS	.57**	.52**
	FNE	.38**	.32**
	FPE	.55**	.66**
	PSWQ	.39**	.37**
	CES-D	.43**	.49**

주. DPSOS=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LSAS=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SIAS=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PS=Social Phobia Scale, FNE=Fear of Negative Evaluation, FPE=Fear of Positive Evaluation, PSWQ=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CES-D=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주. \*\* $p < .01$

DPSOS는 사회불안(타인 귀인  $r=.52$ ,  $p < .01$ ; 자기 귀인  $r=.46$ ,  $p < .01$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타인 귀인  $r=.66$ ,  $p < .01$ ; 자기 귀인  $r=.61$ ,  $p < .01$ ) 및 수행 불안(타인 귀인  $r=.57$ ,  $p < .01$ ; 자기 귀인  $r=.52$ ,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척도와의 상관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타인 귀인  $r=.38$ ,  $p < .01$ ; 자기 귀인  $r=.32$ ,  $p < .01$ ). DPSOS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척도와의 상관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타인 귀인  $r=.55, p<.01$ ; 자기 귀인  $r=.66, p<.01$ ). 이는 DPSOS에서 측정하는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과 밀접한 개념임을 시사한다.

DPSOS와 다른 심리적 특성들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걱정,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DPSOS와 걱정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타인 귀인  $r=.39, p<.01$ ; 자기 귀인  $r=.36, p<.01$ ), 우울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타인 귀인  $r=.43, p<.01$ ; 자기 귀인  $r=.49, p<.01$ ). 사회불안과 DPSOS 간의 상관이 걱정, 우울과 DPSOS 간의 상관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셔 Z 변환(Fisher Z transformation)을 사용하여 상관계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사회불안과 DPSOS와의 상관이 걱정, 우울과 DPSOS 간의 상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DPSOS가 걱정과 우울보다는 사회불안과 더 관련이 있는 측정도구임을 의미하며,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측정함에 있어서 공존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잘 갖추고 있는 척도라는 것을 시사한다.

## 논 의

연구 I에서는 Weeks(2010)가 개발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DPSOS)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DPSOS의 번안을 위하여 개발자의 번안 허가를 받은 뒤 연구자가 1차적으로 번안하였고 임상심리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쳐 번안을 확정하였다. 척도의 타당화를 위하여 번안된 DPSOS를 대학생 집단에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관련이 있는 다른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 분석을 통하여 DPSOS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DPSOS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DPSOS 척도는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 1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타인 혹은 상대방의 특성으로 귀인시킴으로써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치절하 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를 ‘타인 귀인 요인’이라 하였다. 반면, 요인 2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치절하 하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내용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자기 귀인 요인’이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DPSOS를 개발한 Weeks(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지만, 한 문항이 다른 요인에 속하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DPSOS의 2번 문항인 ‘나는 “운이 좋은 날”에만 사회적으로 잘 풀린다고 느낀다.’가 Weeks(2010)의 연구에서는 타인 귀인 요인에 포함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 귀인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통계분석 방법의 차이(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Weeks(2010)의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와 문항 내용 번안의 문제 또는 문화 차이에서 유발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타인 귀인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사람들’, ‘상대방’, ‘다른 참석자’와 같이 타인 귀인의 대상이 명백하게 포함되었다. 반면, 2번 문항의 경우 타인 귀인의 대상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 귀인 요인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Weeks(2010)가 평균 연령 19.60세의 미국 대학생 58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평균 연령 23세의 한국 대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문화적 차이와 표본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뢰도 분석 결과 DPSOS의 전체 문항 및 하위 요인의 내적 일관성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PSO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관련되는 여러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DPSOS는 사회불안,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Weeks, 2010). 따라서 DPSOS는 사회불안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 연구 II.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가 사회불안 및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 II에서는 연구 I에서 타당화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DPSOS)를 사용하여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과 관련된 개념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 등 여러 인지적 요인들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확인하기에 앞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 후, 긍정 결과 가치절하가,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과는 어떤 특징적인 관계를 맺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불안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하위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이 다를 수 있음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수행을 정확하게 평

정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Alden et al., 1995; Beidel et al., 2010; Hope et al., 1990). 반면,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수행을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수행을 부정적으로 편향하여 평가하는 성향을 보였다(신혜린, 2012; Beidel et al., 2010). 또한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개인적 완벽주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기 때문에 스스로 지니고 있는 높은 기준에 비춰볼 때 자신의 수행이 더욱 형편없이 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정 편향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박선영, 2003; 최정훈 등, 1994; Hook et al., 2002). 즉,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지닌 사람들보다 자신의 수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특히 이러한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이를 부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치절하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과 더 밀접한 관련을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 발표 불안 척도 (Speech Anxiety Scale; SAS)를 이용하였다. 왜냐하면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에서 측정하는 수행 불안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거나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인 ‘주시 불안(예: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느끼는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간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II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통제하여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것이다.

가설 2.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성향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배제하여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것이다.

가설 3.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방 법

### 참여자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부생과 교내 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의 모집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구 참여자 모집 시스템(R-point system)을 이용하였다. 총 3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9명의 참여자에게서 얻어진 자료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0.69세(표준편차=1.88)였으며 이 중 남자가 105명, 여자가 154명이었다.

### 측정도구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DPSOS). 연구 I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연구 I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하며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 중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하위 척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발표 불안 척도(Speech Anxiety Scale; SAS). Gilkinson(1942)이 발표를 할 때 보고되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Paul(1996)이 개정하여 단축형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용래,



이민규, 박상향(1999)이 변안한 한국판 SAS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SAS는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할 수 있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용래 등(1999)의 연구에서 한국판 SA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4이었으며, 반분신뢰도는 .84이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FNES). 연구 I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FPES). 연구 I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펜실베이니아 걱정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 연구 I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연구 I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version 20.0)를 사용하여 응답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AMOS 20.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 결 과

연구 II의 참가자 259명의 자료에서 얻은 각 질문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연구 II에 사용된 측정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N=259)

	평균	표준편차
DPSOS	55.44	18.87
LSAS	101.02	22.16
SAS	52.77	13.59
FNE	40.35	8.87
FPE	40.62	15.51
PSWQ	52.70	13.66
CES-D	39.86	10.14

주. DPSOS=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LSAS=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SAS=Speech Anxiety Scale, FNE=Fear of Negative Evaluation, FPE=Fear of Positive Evaluation, PSWQ=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CES-D=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와 사회불안과의 관계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과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상관 분석 결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사회 불안( $r=.56, p<.01$ ) 및 발표 불안( $r=.43,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인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37,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66, p<.01$ )과도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걱정( $r=.43, p<.01$ ) 및 우울( $r=.52, p<.01$ )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6.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와 사회불안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DPSOS						
2. LSAS	.56**					
3. SAS	.43**	.39**				
4. FNE	.37**	.50**	.59**			
5. FPE	.66**	.43**	.21**	.18**		
6. PSWQ	.43**	.39**	.38**	.58**	.21**	
7. CES-D	.50**	.40**	.52**	.31**	.26**	.52**

주. DPSOS=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LSAS=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SAS=Speech Anxiety Scale, FNE=Fear of Negative Evaluation, FPE=Fear of Positive Evaluation, PSWQ=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CES-D=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주. \*\* $p<.01$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지적 특징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모형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를 예언변인으로 포함시켰을 때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추정치의 허용도(Tolerance)와 모수 추정치의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의 추정치 허용도는 .86 ~ .97로 .10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요인은 1.031~1.158로 10.0보다 적어 다중공선성 진단 기준은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모두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사회불안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걱정과 우울 변인을 통제하여 각각의 예언변인이 사회불안에 대하여 지니는 순수한 설명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7. 사회불안에 대한 FNE, FPE, DPSOS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단계	예언변인	$\beta$	$t$	$R^2$	$\Delta R^2$	$F$
사회 불안 (LSAS)	1	FNE	.41	6.41***	.32		38.78***
		PSWQ	.00	.05			
		CES-D	.27	4.45***			
	2	FNE	.38	6.42***	.41	.09	43.79***
		PSWQ	-.01	-.26			
		CES-D	.20	6.34***			
		FPE	.32	6.34***			
	3	FNE	.35	5.89***	.44	.03	39.04***
		FPE	.17	2.73**			
		PSWQ	-.04	-.63			
		CES-D	.13	2.31*			
		DPSOS	.26	3.48**			

주. DPSOS=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LSAS=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FNE=Fear of Negative Evaluation, FPE=Fear of Positive Evaluation, PSWQ=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CES-D=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주. \*p<.05, \*\*p<.01, \*\*\*p<.001

1단계에서 사회불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설명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41, p<.001$ ). 또한 우울( $\beta=.27, p<.001$ )은 사회불안에 대한 유의미한 예언변인이었으나 걱정은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예언변인으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추가하여 이 변인이 사회불안을 얼마나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불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설명력은 2단계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beta=.38, p<.001$ ),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시 사회불안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beta=.32, p<.001$ ). 걱정의 경우 1단계에서와 같이 2단계에서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01$ ), 우울의 경우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도 사회불안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beta=.20, p<.001$ ). 2단계에서 예언변인으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추가되자 1단계보다 9.6%의 설명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4, 259)=43.79, R^2=.41, \Delta R^2=.096, p<.001$ ).

3단계에서는 2단계에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추가하여 이 변인이 사회불안에 대해서 가지는 추가적인 설명량을 확인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1, 2단계에 이어 3단계에서도 사회불안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량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ta=.35, p<.001$ ).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시 2단계에 이어 3단계에서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beta=.17, p<.01$ ). 걱정과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에 대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의 설명력은 유의미하였다( $\beta=.26, p<.01$ ). 3단계에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예언변인으로 추가되자 사회불안에 대한 설명량이 약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 259)=39.04, R^2=.44, \Delta R^2=.03, p<.001$ ).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한 후에도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량을 가진다. 둘째,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 하위 유형의 차별적 관계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을 더 잘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연구에서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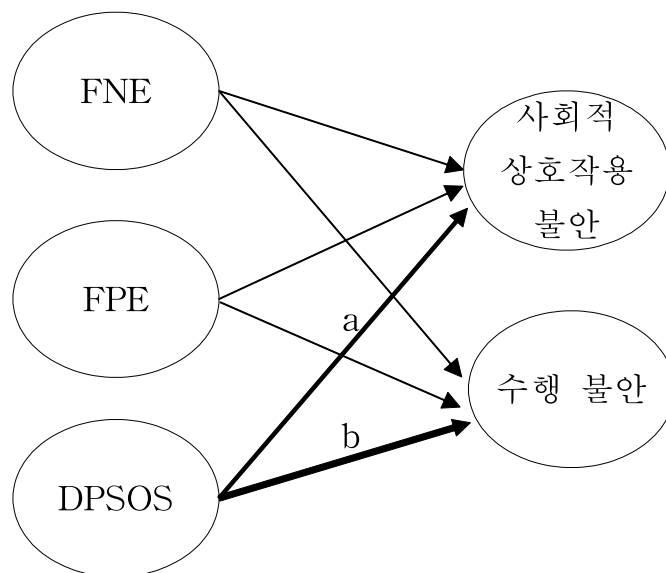


그림 2. 구조 방정식 모형

주. FNE=Fear of Negative Evaluation, FPE=Fear of Positive Evaluation, DPSOS=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가설에 따르면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을 더 잘 예측할 것이다. 즉,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예측하는 측정치 a보다 수행 불안을 예측하는 측정치인 b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아래의 표 8은 a와 b의 측정치와 관련된 결과를 보여준다.

표 8. 구조 모형 검증 결과

	추정치	S.E.	C.R.
FNE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498***	.071	7.037
FNE → 수행 불안	.581***	.137	4.253
FPE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097*	.045	2.159
FPE → 수행 불안	.126	.087	1.452
DPSOS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a)	.155***	.028	5.576
DPSOS → 수행 불안 (b)	.335***	.054	6.243

주. FNE=Fear of Negative Evaluation, FPE=Fear of Positive Evaluation, DPSOS=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위의 표 8에 따르면,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estimate = .155$ ,  $p < .001$ )과 수행 불안( $estimate = .335$ ,  $p < .001$ ) 모두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추정치를 비교해볼 때, 수행 불안에 대한 추정치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한 추정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추정치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포 모형(nested model)을 활용하여 이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내포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 모형 A와 모형 B를 가정하였다. 모형 A는 그림 2와 같은 모형이며, 모형 B는 추정치 a와 b가 같다는 제약(constraint)이 하나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 모형 A와 동일하다. 모

형 A( $\chi^2(5, 259)=27.320, p<.001, TLI=.826, CFI=.971, RMSEA=.093$ )와 B( $\chi^2(4, 259)=18.632, p<.01, TLI=.858, CFI=.981, RMSEA=.084$ )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을 때, 모형 B의 적합도가 모형 A의 적합도보다 근소하게 더 높긴 하지만 두 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MSEA의 경우 모형 A가 0.1보다 작아 모형이 기각될 정도는 아니지만 .09보다 크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가 모형 B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반면, 모형 B의 경우에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을 때, 연구 모형 A와 B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다음의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연구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결과

	$\chi^2$	df	RMSEA	TLI	CFI
모형 A	18.632	4	.084	.858	.981
모형 B (제약 모형)	27.320	5	.093	.826	.971

내포 모형 비교(nested model comparisons)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도가 .01보다 작기 때문에 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는 두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좀 더 복잡한 모형이더라도 설명력이 높은 모형인 모형 B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예측하는 추정치 a는 수행 불안을 예측하는 추정치 b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7, 8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정치 b가 a보다 유의미하게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이다.



## 논 의

연구 II에서는 연구 I에서 번안 및 타당화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를 사용하여,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 및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먼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왜곡 및 완벽주의 성향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수행 불안이 상호작용 불안보다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결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수행 불안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총 합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 I 과 II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I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DPSOS)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는 크게 타인 귀인과 자기 귀인의 2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요인 구조는 질문지의 개발자인 Weeks(2010)의 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먼저 타인 귀인(other attribution) 요인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자신의 특성에 귀인하지 않고 타인이나 다른 사람의 특성에 귀인시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치절하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자기 귀인(self attribution) 요인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치절하 하는 자신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DPSOS는 적합한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여러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DPSOS는 사회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DPSOS는 사회불안과 관련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임이 시사되었다.

연구 II에서는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 및 하위유형 간의 관계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경향성은,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이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주요한 개념임을 시사한다.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신혜린, 2012; Beidel 등, 2010).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편향된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박선영, 2003; 최정훈, 이정윤, 1994; Hook 등, 2002). 즉,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수행을 더욱 낮게 평가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경우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 간의 차이를 더욱 크게 인식하여 긍정적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치절하 하는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과 더 밀접한 관련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모형 검증을 한 결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여 측정도구를 다양화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은 사회불안장애를 유지 및 악화시키는 요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Weeks, 2010). 또한 많은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성향은 사회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Weeks, 2010). 즉,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측정하는 것이 치료 경과 및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특징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사회불안장애를 치료하고 예후를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사회불안 연구에 있어서 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측면이 많이 부각되어져 왔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새롭게 주목 받는 개념이었다. 또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사회불안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선행 연구로서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치료할 때 이를 감안하여 적절

한 인지적 재구성의 선행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모색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가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불안장애의 하위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로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두 특정 대학의 대학생들이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인 혹은 사회불안장애 환자와 같이 보다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DPSOS와 걱정 및 우울 간의 상관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지닌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DPSOS와 걱정 및 우울 간의 상관이 사회불안과 DPSOS 간의 상관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DPSOS와 걱정 및 우울 간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은 측정도구로서의 DPSOS의 타당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DPSOS의 개발자인 Weeks(2010)의 연구에서도, 일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DPSOS와 걱정 및 우울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과 DPSOS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Weeks,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일반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DPSOS와 다른 심리적 특성들과의 관계를 좀 더 다양한 참여자나 임상군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 간의 관

계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사회불안과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 간의 시간적 관계 및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어떤 요인이 선행 요인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나 추적연구를 통해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줄어들어으로써 사회불안 증상의 완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알아본 초기 연구 중의 하나로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들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긍정 결과 가치절하 성향이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별로 미치는 차별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불안의 하위유형별 특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후의 치료계획 및 예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권석만(2013). 현대 이상심리학(제2판). 서울: 학지사.
- 김정원, 민병배(1998).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문제 해결방식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 김은정(1999). 사회공포증의 사회적 자기처리 및 안전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2000). 사회공포증. 서울: 학지사.
- 김향숙(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서정, 이정애, 오강섭(2010). 한국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PES)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 205-221.
- 박선영(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2).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 신혜린(2012). 사회적 불안 상황을 중심으로 한 사회불안 하위 유형의 불안 반응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정(2014). 인지적 탈융합 기법이 사회공포증이 있는 대학생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기능적 태도 및 부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최정훈(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찬(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 전영주, 박기환(201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

- 계: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1(2), 59-73.
- 조용래(1998).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용래, 이민규, 박상향(1999). 한국판 발표불안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65-178.
- 최정훈, 이정운(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21-47.
- Alden, L. E., & Wallace, S. T. (1995). Social phobia and social appraisal in successful and unsuccessful social interac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5), 497-505.
- Alden, L. E., Taylor, C. T., Mellings, T. M., & Laposa, J. M. (2008). Social anx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positive social ev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 577-59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DSM-IV)*.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DSM-5)*. Washington, DC: Author.
- Beazley, M. B., Glass, C. R., & Chambless, D. L. (2001). Cognitive self-statements in social phobia: A comparison across three types of social situ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6), 781-799.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 A cognitive performance*. New York: Basic Books.
- Beidel, D. C., Scharfstein, L., Wong, N., & Alfano, C. A. (2010). Social skills and social phobia: An investigation of DSM-IV subtyp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10), 992-1001.
- Bögels, S. M., Alden, L., & Beidel, D. C. (2010). Social anxiety disorder: Questions and answers for the DSM-V. *Depression and Anxiety, 27*, 89-168.
- Boone, M. L., McNeil, D. W., Masia, C. L., Turk, C. L., Carter, L. E., & Ries, B. J. (1999). Multimodal comparisons of social phobia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3*, 271-292.
- Brown, L. H., Silvia, P. J., Myin-Germeys, I., & Kwapil, T. R. (2007). When the need to belong goes wrong: The expression of social anhedonia and social anxiety in daily life. *Psychological Science, 18*, 778-782.
- Bruce, S. E., Yonkers, K. A., Otto, M. W., Eisen, J. L., Weisberg, R. B., Pagano, M., & Keller, M. B. (2005). Influence of psychiatric comorbidity on recovery and recurrence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A 12-year prospective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6), 1179-1187.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 211-221.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ilbert, P. (2001). Evolution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attraction, social competition, and social hierarchies. *Th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4*, 723–751.
- Heimberg, R. G., & Becker, R. E. (2002).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Basic mechanism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 Heimberg, R. G., Hofmann, S. G., Liebowitz, M. R., Schneier, F. R., Smits, J. A. J., Stein, M. B., Hinton, D. E., & Craske, M. G. (2014). Social anxiety disorder in DSM-5. *Depression and Anxiety*, *31*, 472–479.
- Heimberg, R. G., Holt, C. S. (1993). The issue of subtypes in the diagnosis of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 249–269.
- Heimberg, R. G., Hope, D. A., Dodge, C. S., & Becker, R. E. (1990). DSM-III-R subtypes of social phobia: Comparison of generalized social phobics and public speaking phobic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 172–179.
- Heimberg, R. G., Mueller, G. P., Holt, C. S., Hope, D. A., & Liebowitz, M. R. (1992). Assessment of anxiety in social interaction and being observed by others: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Behavior Therapy*, *23*, 53–75.
- Heinrichs, N., Rapee, R. M., Alden, L. A., Bögels, S., Hofmann, S. G., Ja Oh, K., & Sakano, Y. (2006).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ived social norms and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8), 1187–1197.

- Hirsch, C. R., Clark, D. M., & Mathews, A. (2006). Imagery and interpretation in social phobia: Support for the combined cognitive biases hypothesis. *Behavior Therapy, 37*, 223-236.
- Hofmann, S. G., Dibartolo, P. M. (2010). *Social anxiety: Clinical, developmental, and social perspectives*, 2th ed. New York: Academic Press.
- Hook, J. N., & Valentiner, D. P. (2002). Are specific and generalized social phobias qualitatively distinct?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4), 379-395.
- Hope, D. A., Rapee, R. M., Heimberg, R. G., & Dombeck, M. J. (1990). Representations of self in social phobia: Vulnerability to social threa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177-189.
- Kaiser, H.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2-36.
- Kashdan, T. B. (2007). Social anxiety spectrum and diminished positive experiences: Theoretical synthesis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348-365.
- Kashdan, T. B., & Collins, R. L. (2010). Social anxiety and the experience of positive emotions and anger in everyday life: An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approach. *Anxiety, Stress, & Coping, 23*, 259-272.
- Kocovski, N. L., & Endler, N. S. (2000). Social anxiety, self-regul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347-358.
- Leary, M. R. (2000). Social anxiety as an early warning system:

- A refinement and extension of the self-presentational theory of social anxiety. In S. G. Hofman, & P. M. Dibartolo (Eds.), *Social phobia and social anxiety: An integration*. New York: Allyn & Bacon.
- Levin, A. P., Saoud, J. B., & Strauman, T. J. (1993). Responses of “generalized” and “discrete” social phobics during public speaking. *Journal of Anxiety Disorder, 7*, 202-221.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of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 Marks, I. M. (1969). *Fears and Phobias*. New York: Academic Press.
- Meleshko, K. G. A., & Alden, L. E. (1993). Anxiety and self-disclosure: Toward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000-1009.
- Mellings, T. M. B., & Alden, L. E. (2000). Cognitive processes in social anxiety: The effects of self-focus, rumination, and anticipatory process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243-257.
- Meyer, T., Miller, M. L., Metzger, R. L., & Borkovec, T. D.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6), 487-495.
- Miller, R. S. (1995). On the nature of embarrassability: Shyness, social evaluation, and social skill. *Journal of Personality, 63*, 315-339.
- Nichols, K. A. (1974). Severe social anxiet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4*, 301-306.

- Paul, G. L. (1996). *Insight versus desensi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CA: Standford University Press.
- Pilkonis, P. A., & Zimbardo, P. G. (1979). The person and social dynamics of shyness. In C. E. Izard (Ed.),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741-756.
- Rapee, R. M., & Lim. L. (1992). Discrepancy between self- and observer ratings of performance in social phobic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728-731.
- Reiss, S. & McNeil, D. W., Boone, M. L., Turk, C. L., Carter, L. E., & Heimberg, R. G. (1998). Assessment of contemporary social phobia verbal report instrum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983-994.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Spokas, M., Luterek, J., & Heimberg, R. G. (2009). Social anxiety and emotional sup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belief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0*(2), 283-291.
- Stein, M. B., Jang, K. L., & Livesley, W. J. (2002). Heritability of social anxiety-related concerns and personality

- characteristics: A twin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4), 219-224.
- Stopa, L., & Clark, D. M. (2001). Social phobia: Comments on the viability and validity of an analogue research strategy and british norms for fear of negative evaluation questionnaire.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29, 423-430.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2), 326-331.
- Vassilopoulos, S. P., & Banerjee, R. (2008). Interpretations and judgements regarding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scenarios in childhood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 870-876.
- Voncken, M. J., Bogels, S. M., & Vries, K. (2003). Interpretation and judgmental bias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1481-1488.
- Wallace, S. T., & Alden, L. E. (1995). Social anxiety and standard setting following social success or fail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6), 613-631.
- Wallace, S. T., & Alden, L. E. (1997). Social phobia and positive social events: The price of suc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416-424.
- Weeks, J. W. (2010). The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A novel assessment of a long-recognized cognitive tendency in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 856-865.

- Weeks, J. W., Heimberg, R. G., Fresco, D. M., Hart, T. A., Turk, C. L., Schneier, F. R., & Liebowitz, M. R. (2005). Empirical validation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in patient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Psychological Assessment*, 17(2), 179.
- Weeks, J. W., Heimberg, R. G., & Rodebaugh, T. L. (2008).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Assessing a proposed cognitive componen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 44-55.
- Weeks, J. W., Heimberg, R. G., Rodebaugh, T. L., & Norton, P. J. (2008).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 386-400.
- Weeks, J. W., Rodebaugh, T. L., Heimberg, R. G., Norton, P. J., & Jakatdar, T. A. (2009). "To avoid evaluation, withdraw": Fear of evaluation and depressive cognitions lead to social anxiety and submissive withdrawa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 375-389.

## 부 록

- 부록 1.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
- 부록 2.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
- 부록 3.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 부록 4. 사회적 공포 척도
- 부록 5. 발표 불안 척도
- 부록 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 부록 7.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 부록 8. 펜실베이니아 걱정 질문지
- 부록 9. 우울척도(CES-D)



## 부록 1.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척도(DPSOS)

●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9)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십시오. 각 문항은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누군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 쉽다고 느끼곤 한다.	0	1	2	3	4	5	6	7	8	9
2	나는 "운이 좋은 날"에만 사회적으로 잘 풀린다고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3	사람들은 단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 농담이 재미없더라도 웃어줄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4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나는 내 공로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충분히 칭찬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5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나보다는 상대방 때문일 거라고 여긴다.	0	1	2	3	4	5	6	7	8	9
6	나는 나의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를 별 것 아니라고 일축해버릴 때가 많다.	0	1	2	3	4	5	6	7	8	9
7	다른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낸 듯할 때, 상대방이 그저 예의를 차린 건지 의심이 된다.	0	1	2	3	4	5	6	7	8	9
8	나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	0	1	2	3	4	5	6	7	8	9
9	내가 누군가와 굉장히 잘 지낸다면, 그건 대개 상대방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나는 칭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1	사람들은 단지 나에게 맞장구 쳐주기 위해 내 얘기가 재미있다고 말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0	1	2	3	4	5	6	7	8	9
12	나는 "말 걸기 쉬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편이다.	0	1	2	3	4	5	6	7	8	9
13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다른	0	1	2	3	4	5	6	7	8	9

---

참석자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와 더  
관련이 있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 맺  
는 내 능력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

## 부록 2.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SAS)

●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입니다. 자신이 아래 제시된 상황에 있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안을 느끼며(불안), 그 상황을 얼마나 회피하려고 하는지(회피)를 각각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불안: 제시된 상황이라면, 당신은 얼마나 불안할 것이라 예상합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음 0 - 1 - 2 - 3 매우 불안함

회피: 제시된 상황이라면, 당신은 얼마나 이 상황을 회피할 것이라 예상합니까?  
 전혀 회피하지 않음 0 - 1 - 2 - 3 항상 회피함

	내용	불안	회피
1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할 때		
2	소모임에 참여할 때		
3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4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5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6	청중들 앞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7	사교적인 모임에 갈 때		
8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할 때		
9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글씨를 쓸 때		
10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11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12	낯선 사람들과 처음으로 만날 때		
13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14	이미 사람들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갈 때		
15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16	공식적인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때		
17	시험 볼 때		
18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반대의사를 표현할 때		
19	잘 모르는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볼 때		

- 
- 20 모임에서 발표할 때
- 
- 21 이성에게 호감을 사려고 할 때
- 
- 22 상점에서 물건을 교환할 때
- 
- 23 파티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할 때
- 
- 24 물건을 사도록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때
-

### 부록 3.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

●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	1	2	3	4	5
2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1	2	3	4	5
3	나 자신이나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면 긴장된다.	1	2	3	4	5
4	동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5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된다.	1	2	3	4	5
6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	1	2	3	4	5
7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서는 긴장된다.	1	2	3	4	5
8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1	2	3	4	5
9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0	이야깃거리를 쉽게 생각해낸다.	1	2	3	4	5
11	이상하게 보일까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걱정된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대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3	매력적인 이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4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곤 한다.	1	2	3	4	5

15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 불편하다.	1	2	3	4	5
16	대화 도중 부적절한 말을 할 것 같다.	1	2	3	4	5
17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할 때 무시당할까봐 걱정하곤 한다.	1	2	3	4	5
18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긴장된다.	1	2	3	4	5
19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망설인다.	1	2	3	4	5

## 부록 4. 사회적 공포 척도(SPS)

●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글을 써야 할 때면 불안해진다.	1	2	3	4	5
2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1	2	3	4	5
3	내 목소리와 내게 귀 기울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의식되곤 한다.	1	2	3	4	5
4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5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굴이 붉어질까봐 두렵다.	1	2	3	4	5
6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앉아있는 방에 들어갈 때는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1	2	3	4	5
7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떨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8	버스나 기차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앉아야 할 경우 긴장되곤 한다.	1	2	3	4	5
9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을 잃거나 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공포스럽다.	1	2	3	4	5
10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무언가를 마시는 것이 힘들다.	1	2	3	4	5
11	식당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면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1	2	3	4	5
12	사람들이 내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3	식판을 들고 번잡한 식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려면 긴장되곤 한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제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게 될까	1	2	3	4	5

	봐 걱정된다.					
16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17	줄을 서 있을 때, 나만 유난히 눈에 띄는 것 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면 걱정된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가로젓거나 끄덕 거릴 것 같아 걱정된다.	1	2	3	4	5
20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부하고 걱정된다.	1	2	3	4	5



## 부록 5. 발표 불안 척도(SAS)

● 각각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중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린다.	1	2	3	4	5
2	발표 중 연단 위에 있는 물건을 만지려고 할 때 손이 떨린다.	1	2	3	4	5
3	발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두렵다.	1	2	3	4	5
4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청중은 나에게 우호적인 것처럼 보인다.	1	2	3	4	5
5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불안하다.	1	2	3	4	5
6	발표를 끝낼 때, 나는 즐거운 경험을 했다고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몸동작을 많이 사용하거나 목소리를 표현력 있게 내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
8	나는 청중 앞에서 발표할 때, 생각이 뒤죽박죽하고 혼란스럽다.	1	2	3	4	5
9	나는 청중들을 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1	2	3	4	5
10	발표하기 직전에는 신경이 예민해지지만, 금방 두려움을 잊고 그 경험을 즐긴다.	1	2	3	4	5
11	발표 전, 나는 아주 자신 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1	2	3	4	5
12	발표를 하는 동안 나는 아주 침착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13	나는 친구들과 유창하게 말하지만, 연단 위에 서면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1	2	3	4	5
14	발표를 하는 동안 나는 긴장되지 않고 편안하다.	1	2	3	4	5
15	나는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즐기지도 않지만, 특별히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1	2	3	4	5
16	가능하다면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피	1	2	3	4	5

	한다.					
17	청중들을 쳐다볼 때 그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인다.	1	2	3	4	5
18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려고 애쓴 후에는 내 자신이 싫어진다.	1	2	3	4	5
19	나는 발표 준비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20	나는 청중을 대할 때 정신이 또렷해진다.	1	2	3	4	5
21	나는 발표할 때 말을 잘 한다.	1	2	3	4	5
22	나는 발표하기 위해 일어서기 직전에 땀이 나고 떨린다.	1	2	3	4	5
23	발표할 때, 내 자세가 긴장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1	2	3	4	5
24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동안 나는 두렵고 긴장된다.	1	2	3	4	5
25	발표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6	내 생각을 표현할 정확한 말들을 차분하게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27	대중 앞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하면 겁난다.	1	2	3	4	5
28	나는 청중 앞에 서면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 부록 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NES)

●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별 상관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걱정이 된다.	1	2	3	4	5
2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라도 나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1	2	3	4	5
3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4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에 대해 거의 염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5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1	2	3	4	5
6	사람들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아낼 것 같아 걱정된다.	1	2	3	4	5
7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쓰지는 않는다.	1	2	3	4	5
8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된다.	1	2	3	4	5
9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대해 대개 걱정된다.	1	2	3	4	5
10	누가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걸 알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2	3	4	5
11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말을 실수하거나 일을 잘못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 부록 7.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PES)

●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9)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비록 내 재능이 뛰어나도, 그것을	
1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다.	0 1 2 3 4 5 6 7 8 9
2	내가 끌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는 불안해질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3	옷을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옷을 고르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5 6 7 8 9
4	권위자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나는 불안해진다.	0 1 2 3 4 5 6 7 8 9
5	사람들이 흥미로워할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주로 그것을 말한다.	0 1 2 3 4 5 6 7 8 9
6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칭찬받는 것이 더 좋다.	0 1 2 3 4 5 6 7 8 9
7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잘 하고 있다면, 내가 지나치게 잘 하는 게 아닌지 걱정할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8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나는 보통 마음이 불편해진다.	0 1 2 3 4 5 6 7 8 9
9	사람들이 나를 동경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0 1 2 3 4 5 6 7 8 9
10	나는 종종 내가 과소평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내 장점에 대해 더 칭찬해주었으면 좋겠다.	0 1 2 3 4 5 6 7 8 9

## 부록 8. 펜실베이니아 걱정 질문지(PSWQ)

● 다음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을 다 끝낼 만큼 시간이 충분치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2	걱정이 나를 누른다.	1	2	3	4	5
3	나는 그리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1	2	3	4	5
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1	2	3	4	5
5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1	2	3	4	5
6	뭔가에 압박을 받으면, 상당히 걱정하게 된다.	1	2	3	4	5
7	나는 늘 뭔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1	2	3	4	5
8	걱정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1	2	3	4	5
9	무슨 일 하나를 끝내면 곧바로 해야 할 다른 일에 대한 걱정이 시작된다.	1	2	3	4	5
10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11	걱정거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지금까지 늘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1	2	3	4	5
13	얼마 전에도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1	2	3	4	5
14	일단 걱정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다.	1	2	3	4	5
15	나는 내내 걱정하고 지낸다.	1	2	3	4	5
16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칠 때까지는 그 일에 대해 계속 걱정한다.	1	2	3	4	5

## 부록 10. 우울척도(CES-D)

●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본인이 느끼시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지난 1주일(7일) 동안...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and Social Anxiety

Sang-yeon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refers to a tendency to devalue positive social evaluation.

In study I,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DPSOS), which measures a individual's tendency to devalue positive social outcomes,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was validated. The self-report data were collected from 137 undergraduate students. Explan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e 2-factor construct('other-oriented attribution', 'self-oriented attribution').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indicat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Finally,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xplore the validity of DPSOS. The results yielded that DPSO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Worry and depression were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DPSOS, but



DPSOS correlated more strongly with measures of social anxiety than with the measures of depression and worry.

In Study II,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was explored. The self-report data were collected from 256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of hierarchical analysis demonstrated that fear of positive evaluation predicted social anxiety after controlling for fear of negative evaluation.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also predicted social anxiety upon controlling for fear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indicated that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was more strongly predicted performance anxiety than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is study suggests that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is a significant concept which predicts social anxiety. In addition, the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subtypes of social anxiety and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was identified. Last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social anxiety,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tudent Number : 2013-20107*